

서예가 이봉석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영예

이봉석 “비전업 작가로서 큰 기쁨”



서예가 이봉석 씨가 매월당 김시습의 시 '10년'(행초서)이라는 작품으로 2004 제2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

예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머쥐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술대전에서 경쟁한 서예 전업 작가들과 경쟁해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봉석 서예가는 현재 영북면 운천리의 성심외과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국대학미전 문교부장관상, 경기미술대전 특선 3회 입선(초대작가), 전국의인미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영문서예를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무료로 서예를 지도하고 있어 지역문화발전에 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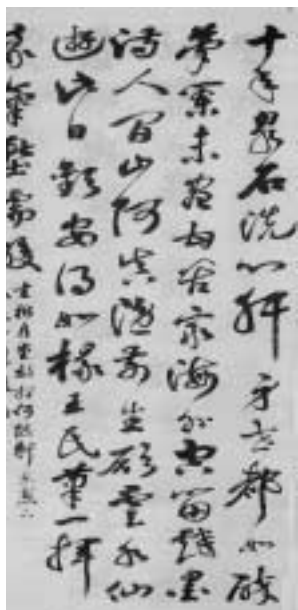
이번 수상에 대해 그는 “환자를 돌

보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해왔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다”라며 특선은 기대 안 했는데 수상 소식을 받고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상 받고 초대작가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하겠다 며 지역 서예문화의 기분을 닦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미술대전 서예부문은 총 1천846점이 응모된 가운데 대상 1점, 우수상 4점 등 총 520점이 입상했다.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7월 13일 개최되며 7월2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문화 칼럼

‘포천시 문화기금’이 필요할 때



최 치 선 (마흘남성향합창단장)

한국에는 옛 문화재가 아주 많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닌 인재가 풍부한 나라다.

포천을 돌이켜 보면 유림을 통한 유생뿐 아니라 이곳이 산지수려하여 외지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움지기를 들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다.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그토록 참혹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한 종족이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데 끊임 없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크푸르트로 당선된 드골은 작가 앙드레 말로를 문화장관으로 임명, 국가재정 중 가장 큰 몫을 문화부처가 쓰도록 배려했다. 문화를 ‘나라의 힘’으로 생각하고 키운 것은 그저 먼 나라 일이지니 생각할 일이 아니다. 놀랍게도 1973년 박정희 군사정권은 혹독한 독재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한국문예진흥원을 설립했다.

올해로 30년을 맞는 문예진흥원은 크고 작은 사업을 통해 우리 문화 예술에 대해 갖가지 지원을 해 왔다.

포천시 발전의 시금석은 단연코 문화 마인드가 리드해야 할 줄 안다. 문화부로 출범했던 정부 조직을 공보·체육·관광과 합쳐 놓고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지위의 정부정책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일은 애석하기 짝이 없다. 포

천시도 예외는 아닐진대 전국의 보통 규모와 다른 시보다 10여 년을 앞서 문화예술 공간을 바라보며 포천시에 희망을 걸어 본다. 문화예술에 쏟는 돈은 얼마를 부어도 전혀 낭비가 아닌 축적으로 쌓이는 무형의 자산이라 말하고 싶다.

공산품 하나를 생산해도 문화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만들면 그 가치기준이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예화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포천시는 지방세의 일부를 문화예술 향수와 창조에 기여하도록 해야 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라도 재원확보는 시급하다 하겠다. 과거의 포천군에 비하면 현재 포천시가 살고 있는 정성을 생각하면 감격스러울 정도로 문에 넘친다.

살림이 어려울수록 문화 예술 살리기를 뒷전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문화는 언제나 앞자리에 내세워야 할, 한 민족 집단 정신 그 자체이며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포천시의 위상 결정은 문화예술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 앞에 머리를 숙여 본다.

포천예우회 이병찬 신임 회장 취임

8일, 유림회관에서 이취임식 가져



포천예술인동우회 신임회장에 이병찬(48) 회장이 취임했다.

포천예술인동우회는 18일 유림회관에서 이석구 전 회장의 이임식과 이병찬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함께 개최했다.

89년 예술인동우회 창설에서부터 92년에서 2004년까지 13년 동안

안의 회장 역임에 이르기까지 포천예술인동우회의 산증인인 이석구 전 회장은 이날 박운국 포천시장, 홍성훈 포천시의회회장,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이날 이 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비록 아마추어 작품이지만 우

리가 그동안 땀 흘려 이룬 것들이 후에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것을 믿는다”며 “앞으로 ‘예술인동우회’의 20년사’ 등을 엮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 이병찬 신임 회장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회원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격려를 당부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불우이웃돕기 하춘하孝 콘서트’

수익금으로 연탄 구입해 불우이웃에게 전달



“불우이웃도 돕고, 흥겨운 노래 마당도 참가하고...”

‘불우이웃돕기 하춘하孝 콘서트’가 다음달 3일 오후 3시와6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콘서트는 <물새 한 마리>, <엄마아리랑>, <날 버린 남자> 등 가수 하춘하 씨의 히트곡과 신곡, 팝송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준비되며, ‘부모님이 좋아하는 우리 노래 베스트 10’을 설문 조사해 즉석에서 들려준다.

또 하춘하가 직접 노래 강습 강사로 나서 노래 잘할 수 있는 비결과 곡목 선택 방법 등을 자세히

강의하며 관객들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하춘하는 최연소(만6세) 음반출반·최연소(10세) 영화주제가를 부른 가수 등 각종 기록을 갖고 있는 경력의 가수이다.

한편, 이번 공연을 주최하는 포천시 새마을운동지회는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각 읍면동의 연탄난방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관람료 전 좌석 30,000원

문의 535-5101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00)

단오 이야기



금년은 6월22일이 단오절이다. 음력 5월5일을 ‘단오절’이라 하는데 ‘설날’, ‘추석’, ‘한식’과 함께 4대 명절로 불린다. 단오는 수릿날(成衣日·水瀧日), 천중절(天中節), 중오절(重午節), 단양(端陽)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조선조 궁중에서는 단오제를 지냈으며(1402년 태종2년, 임금님이 문소전에 나아가 단오제 거행), 옛날에는 농경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삿날이었으나 각 가

정에서는 수리취떡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기도 했다.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 등의 놀이로 하루를 즐겼다. 오늘날은 강릉 단오제가 유명하며 음력 4월15일 시작하여 5월5일 절정을 이룬다. 제례, 굿, 관노가면극, 씨름, 그네 대회 등이 행해진다.

중국이나 한반도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근거하여 5월 5일은 양기가 강한 날이라 하여 큰 명절로 생각해 왔다. 수릿날에서 ‘수리’는 고(高), 상(上), 신(神)의 뜻으로 우리말의 옛말인데 5월5일은 ‘신의 날’, ‘최고의 날’이란 뜻에서 이름이 붙게 되었다. 쑥떡을 단오절에 만들어 먹었는데 모양새가 수레바퀴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리

=수레날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또 복록(福祿)을 얻고 귀신과 404가지 병을 소멸하는 주문을 쓰거나 혹은 처용상을 그려 넣는 부적을 궁중 관상감에서 천중부적이라 하여 만들어 문에 붙였다 한다.

단오날 아침 상추밭에 나아가 상추잎에 묻은 이슬을 받아 세수하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으며 부스럼도 없다고 믿었다. 창포 머리감기는 창포와 쑥을 삶아 머리를 감았다. 또 단오날, 오시(午時)에 익모초(益母草)와 쑥을 뜬어 말려 한방의 약초로 사용하였는데 서양에서도 전래 약초로 쓰여 왔다.

쑥은 이른 아침 쑥베기를 하여 다발을 엮어 문 옆에 세워두면 재액을 물리친다고 믿었다.

‘창포뿌리비녀’를 만들어 머리에 꽂기도 하고 ‘호로박’이나 인형을 허리에 차기도 하였다.

옛날 사대부(士大夫)집이나 궁중에서 관상감 제정 주사의 부적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월5일 천중일(天中日)에, 위로는 하늘의 녹(祿)을 받고 아래로 땅에는 복(福)을 얻어 치우(蚩尤)의 복을 구리머리? 쇠이마? 붉은입? 붉은혀로 일시에 없어져라. 빨리 빨리 법대로 시행하라.

창포를 삶은 물은 머리카락에 윤기가 흐르고 빠지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하며 소담하다고 하여 ‘날’?여가 모두 세발제로 애용하여 왔다. 내 고향 포천에서는 특별히 단오절 행사를 갖지는 않았으나 마을 마다 연못에 심은 창포를 베어 머리를 감았으며 냇가에서 씨름도 하고 장날에는 씨름판이 크게 열렸는데 장터 씨름판은 환소를 상품으로 타는 장사가 큰 박수를 받던 생각이 난다.

필자연락처 : 02)932-2434

포천의 명현탐구 연계 종료

포천의 명현탐구 연계기사가 지난해호(제271호)로 종료됐다. 필자 리효종(78.사진) 포천향토사연구소장은 이번 연재를 통해 포천의 명현 96명을 연계하여 명현의 후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포천시민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2001년3월20일(포천신문 제154호)자부터 시작해온 포천의 명현탐구는 예로부터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하여 이 나라 발전에 크

게 기여해온 포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지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리효종 소장은 국민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육문화과정을 수료했으며 초등학교 교원생활 36년중 26년간 교장으로 봉직했으며 민방위대 강사 10년,민족통일협의회 운영위원,국가사관 위 조사연구위원 10년,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위원, 1.2대 경기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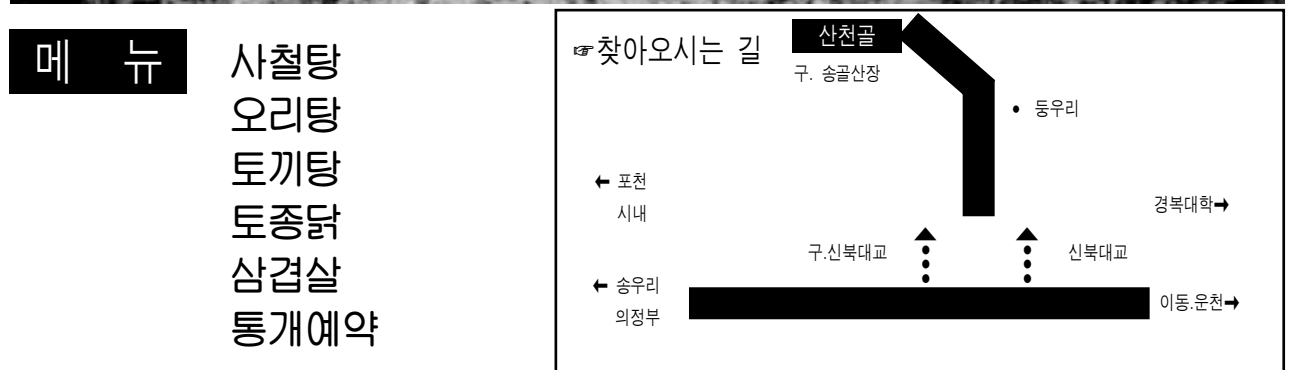


리 효 종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위원,면담 최익현선생 숭모사업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통령표창, 문교부장관표창,내무부장관 표창 등의 수상실적이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산천골 가든 (구 송골산장)

고객님들께 신선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자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363 산천골 가든 (구 송골산장) / 예약, 문의전화 : 031) 535-7668 / 대표 : 김점숙